

나비박사 石宙明

“生物学 연구에 빛을 남겨”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敎수·科學史)

〈나비박사〉라고 이름이 났던 박물학자가 있다. 반세기 전 개성에 있던 松都중학교 생물교사로 있으면서 전국 방방 곡곡을 헤메며 한국에 있는 나비란 나비는 거의 모두를 채집했던 石宙明(1908-1950)이 바로 그 사람이다. 20년동안 그가 채집한 나비는 6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것처럼 많은 나비를 채집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적은 없지만 그를 “나비박사”라 부르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 같다.

석주명의 고향은 평양. 그는 1908년 11월 13일 아버지 석승단과 어머니 김씨 사이의 3남매 가운데 맏이로 태어났다.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의 책벌레였다는 그는 개성에서 송도고등보통학교를 마친 뒤 일본 유학을 떠났다. 그가 일본에서 다닌 학교는 카고시마(鹿兒島) 고등농림학교였다. 1929년, 이 학교를 졸업한 그는 곧 모교인 송도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 후 15년동안 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석주명은 “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박사 못지 않게 그는 우리나라의 초기 생물학연구에 빛을 남긴 인물이었다.

◇ 귀국후 줄곧 산과 들을 헤메며 나비채집 시작

아직 과학다운 과학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아주 초창기의 생물학이라면 우선 동물과 식물에 대한 박물학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대였다. 석주명은 이 시대에 맞춰 자기의 일생을 박물학 특히 나비의 조사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일본에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송도고보 교사로 귀국한 이후 줄곧 학생들을 데리고 산과 들을 헤메며 나비의 채집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포충망으로 잡아온 나비는 일부를 학교에 표본으로 전시하고, 일부 표본은 외국 학자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그가 우리나라의 첫 동물학자의 한 사람으로 나비를 따라 전국을 누비던 1930년대는 한국인이 처음으로 근대적 학문에 눈뜨던 때였다. 역사나 철학같은 학문은 방법이나 관심이 크게 다르기는 했지만 이미 전통사회에서도 있었던 학문이었던데 반해서, 자연과 학은 아예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생물학의 경

우도 마찬가지였다.

한의학의 기본이 되는 本草에 대한 관심과 농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동물과 식물에 대한 지식이 모아 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근대적인 생물학과는 꽤 거리가 있었다. 예를 들면 나비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까 답이 없는 것이 전통적인 본초학이요, 농업이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동식물의 분포가 제법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주로 서양 학자들의 관심 때문이었다. 특히 1876년 개국과 함께 서양학자들은 다투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내륙지방을 여행하며 동물과 식물의 채집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가 외국에 소개되기 시작했음은 물론이다. 1905년을 사조약으로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드디어 1910년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자 이번에는 일본인 학자들이 한국의 동식물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韓國 근대動物學을 4期로 분류

석주명은 한국 나비에 대한 연구의 역사를 “한국 산蝶類의 연구사”라는 글로 남긴 일이 있다. 여기서 그는 한국 근대 동물학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4기로 나눈 일이 있다.

제 1기(1882-1901)

서양인이 기록한 시대로 처음에는 탐험가등 채집인만이 왔으나 뒤에는 생물학자가 직접 현장 조사를 위해 찾아왔다.

제 2기(1905-1929)

주로 일인 학자가 이 시기의 주역이 됐다. 석주명에 의하면 이 시기의 대표적 학자로는 松村, 仁禮, 土居, 岡本, 森 등이 있다.

제 3기(1929-1939)

한국인들이 활약하기 시작한 시기다. 석주명이 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동식물의 분포가 제법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주로 서양 학자들의 관심 때문이었다. 특히 1876년 개국과 함께 서양학자들은 다투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내륙지방을 여행하며 동물과 식물의 채집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가 외국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생물학이란 아직 지금과 같은 그런 생물학이라기 보다는 생물의 분류와 생태 조사가 중심이 되는 “博物學”이었다. 우선은 생명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보다도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류의 생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기초조사가 시급한 시기였다.

국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도 1929년 이었다.

제 4기(1940년 이후)

이 시기에 들어와서야 나비 연구는 정리를 맞았다 고 그는 평가했다.

그가 지적한 것처럼 1930년대에는 鄭台鉉, 趙福成, 李德鳳 등이 생물학연구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정태현은 이미 191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식물 채집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개 중등학교 교원이었고, 훨씬 어려이었던 일인 교원들과 함께 조선박물학회 또는 조선박물교원회등 단체를 만들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의 생물학이란 아직 지금과 같은 그런 생물학이라기 보다는 생물의 분류와 생태 조사가 중심이 되는 “博物學”이었다. 우선은 생명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보다도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류의 생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기초조사가 시급한 시기였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대학도 없었고, 제대로 과학자로 교육받은 인물도 없었다. 대학도 없었을 때였으니 연구실이나 실험실도 없는 형편이었다.

◇外國에서 보고되지 않은韓國 고유종을 찾는 데 보람

당시 생물교사들에게는 우선 전국을 실험실습장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 살고있는 생물의 종류를 채집 분류하고, 그러는 사이 외국에서는 보고되지않은 우리나라 고유의 종을 찾아내어 기뻐하는 것이 큰 보람이던 그런 시절이었다.

어떻게 보면 1930년대에 새로 자라고 있던 한국인 과학자들 가운데 생물학자들은 그나마 아주 행복한 편이었다. 물리학이나 화학등 다른 과학 분야를 공부한 당시의 교사들이 아무런 발견의 기쁨을 즐길 수 없는 동안에도 이들 생물학 전공자들은 신종을 발

견하고 이를 세계 학계에 알려 외국인들의 인정을 받
고 기뻐하곤 했기 때문이다.

석주명의 이름도 바로 이런 이유로 1930년대에는
이미 외국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이
름이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가 더욱 나비연
구에 열심일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계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가 일본유학을 마치고 돌아온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던 1929년말 몽고지방을 탐사하고 돌아오
던 미국의 지질학자 모리스가 우연히 석주명의 곤충
표본을 구경하게 되었던 것이다. 모리스는 서울로 가
려던 것을 실수로 그때 개성에서 기차를 내렸던 것
인데, 그의 칭찬으로 석주명의 사기가 크게 올라갔
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 英国王立아시아학회 研究費를 제공받기도

이를 계기로 석주명은 1930년부터 이미 미국의 박
물관과 표본교환을 시작했다. 1933년부터는 미국 하
바드대학교의 비교동물학 과장 바미어박사와도 접촉
이 시작되어 그의 중개로 석주명의 연구는 더욱 활
기를 띄게 되었고, 서양에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이
렇게 그의 연구가 서양인에게 알려지게되자 영국의
왕립아시아학회는 그에게 한국의 나비목록을 만들
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연구비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41년의 일이었다. 이때쯤 이미 전쟁의 구름은 태
평양 위에도 덮여가고 있었다. 〈나비박사〉 석주명의
일생은 세계대전과 함께 실질적으로 끝나가고 있었
다.

1943년 그는 정든 고향이나 다름없던 개성을 떠
나 제주도로 향했다. 경성제대의 생약연구소장을 맡
았기 때문이었다. 개성을 떠나면서 그는 모아 두었
던 60만 마리의 나비표본을 불태워 버렸다고 전한
다. 어쩌면 그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때쯤

1930년대에는 외국에 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1929년 몽고지방을 탐사하고 돌아오던 미국의 모리
스가 우연히 석주명의 곤충표본을 보고 칭찬을 하
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더욱 나비 연구에 열중
하게 됐다는 것.

6.25가 지나고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된
지 1주일쯤 뒤 과학박물관에 불이 났다. 석주명은
표본을 구해 보려고 그 불속에 뛰어 들어갔다가 살
아 나오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43세의 짧은
일생을 마쳤다.

에 이미 생물학연구에는 실질적으로 관심을 잃고 있
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제주도에 있는
동안 그는 오히려 평소 그가 갖고 있던 어학에 관한
관심을 살려 제주도의 사투리 연구에 몰두했다.

해방될 때까지 그는 제주도에서 살았고, 그 결실은
뒤에〈제주도방언집〉〈제주도문헌집〉등으로 책이 되
어 남게 되었다. 석주명은 에스페란토에도 능했던 그
나름의 언어학자였다.

해방후 그는 서울로 돌아왔다. 잠시 농사시험장의
병리곤충학부장을 맡고있던 석주명은 1946년 국립
과학박물관의 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은
이름이 국립과학관으로 바뀌어 창경원 옆에 있지만
당시의 과학박물관은 남산 중턱에 있었다.

6.25가 지나고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된
지 1주일쯤 뒤 과학박물관에 불이 났다. 석주명은
표본을 구해 보려고 그 불속에 뛰어 들어갔다가 살
아 나오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개성시대에
쓴 84편의 논문을 남기고 그는 43세의 짧은 일생을
마쳤다.

◇ 연구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안에서 잠그고 열중

석주명의 일생은 학자로서는 아주 보람찬 것이었
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외국 학자들의 관심까지
얻을 수 있었던 행운의 학자였던 석주명은 그렇게
되기까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었다. 연구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는 서재를 안에서 잠그고
연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다. 그 방에는 안에
서 밖의 사람을 부를 때에 쓰도록 초인종이 장치되
어 있었다. 그는 기타 치기를 즐겼다고도 알려져 있
지만 대체로는 연구에 몰두하여 외롭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내와도 그리 화목하지 못한 일생을
보냈다고도 전한다.